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메타분석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강다영*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창업학전공 창업학 석사과정

이은진**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창업학전공 창업학 박사과정

이우진***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경영대학 창업전공 부교수

국문 요약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며, 국내에서도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들이 '창업교육', '기업가정신 교육', '앙트러프리너십 교육' 등 저마다의 이름과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이 확산됨에 따라 관련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개별적인 연구결과가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직까지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여 교육 성과에 대한 통일된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는 미비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다수의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관련 연구 동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타당하고 통일된 결론이 제시되어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기업가정신 교육, 창업교육, 창업의지, 메타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1. 서론

기업가정신이 국가적 차원에서 고용 창출 및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국가의 성장동력으로(Reynolds, 2002; Decker et al, 2014), 개인적 차원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하나의 능력으로 조명되고 있다(Obschonka, 2014; 이윤준, 2017; Chrisman et al., 1995). 이러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역시 국가적인 의제(agenda)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영국, 스페인, 호주,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등의 해외 선진국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는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가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Kim et al., 2020), 국내에서도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교육이 시작되어 2012년 61개 대학에 창업교육센터가 설립을 기점으로 창업교육이 급속도로 성장했다(이우진·황보운, 2015).

현재는 초·중·고,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은 물론 비교육기관인 정부기관과 민간 기업에서도 나이, 성별,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오영미·박성환, 2014). 기업가정신 함양, 실전 창업 연계, 창업전문가 양성 등 교육 목적에 따라 이론 강의부터 체험 실습까지 다양한 형태의 커리큘럼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이 확산함에 따라 관련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개별적인 연구들은 일부 프로그램에 한하여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고 있을 뿐, 국내

* 주저자,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창업학전공 창업학 석사과정, kdy980311@gmail.com

** 공동저자,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창업학전공 창업학 박사과정, eunjin7712@gmail.com

*** 교신저자,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경영대학 창업전공 부교수, drlee@kookmin.ac.kr

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통일된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는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불어, 기업가정신 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긍·부정의 영향이 모두 보고되고 있는 해외(Lorz, Müller & Volery, 2011; 공혜원·김효선, 2018; Bae et al., 2014)와는 다르게 국내에서는 긍정적인 연구결과만이 보고되고 있어, 출판편향(publication bias)* 역시 의심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정말 효과적인지, 관련 성과를 분석한 국내 연구들을 통해 기업가정신 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효과크기 및 네트워크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기업가정신 교육의 성과를 분석한 국내 연구의 동향을 검토하고, 기업가정신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메타분석에 활용된 논문들을 바탕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기업가정신 교육 성과에 대한 연구동향을 검토하고, 국내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과 발전의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타당하고 통일된 결론을 제시하고, 기업가정신 교육 구성에 대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여, 국내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Entrepreneurship Education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개념에 대해 학자들마다 무수히 많은 정의가 존재하는 만큼, 기업가정신 교육(entrepreneurship education)에 관한 정의도 수없이 다양하다(Kim, G. et al., 2020; 배병운, 2022; 이유진·심호식, 2022). 창업학의 기원이라 여겨지는 Schumpeter(1934)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수행하는 주체를 기업가로 보고, 기업가정신의 핵심을 ‘혁신’으로 규정했다. 한편, Kirzner(1985)는 기업가정신의 핵심을 ‘기회 포착’으로 여겼고, Peter Drucker는 ‘위험감수성’을 강조했다(이우진 외, 2022).

이렇듯 기업가정신의 정의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됨에 따라, 기업가정신 교육 역시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Gartner, 1990). 초기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논의는 기업가의 특성(trait)에 주목했다. ‘기업가는 누구이며, 어떤 특성을 갖는가?’라는 질문에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는 관점과 후천적으로 육성된다는 관점이 대립했다. 기업가정신이 교육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Gartner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이우진·심호식, 2022; Ronstadt, 1985; Neck et al., 2014).

Gartner(1989)는 행동접근법(behavioral approach)을 통해 기업가의 특성이 아닌 기업가의 행동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기업가정신을 새로운 조직의 창조로 정의했다. Shane & Venkataraman(2000)은 기업가정신의 개념을 기회를 인식하고, 평가하고, 탐색하는 과정으로 구체화했다. 기업가정신 교육의 논의가 ‘특성’에서 ‘행동’으로 옮겨온 이후, 기회포착(identifying an opportunity)부터 투자회수(exit)에 이르는 기업가적 과정(entrepreneurial process)에 대한 단계별 교육이 생성되기 시작했다(이우진·심호식, 2022; Neck et al., 2014).

프로세스 접근으로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린스타트업(lean startup) 등의 방법들이 고도화 되었으나, 프로세스적 관점은 같은 과정을 거쳐도 다른 결과물이 산출되는 원리를 설명하기엔 부족했다. 이에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기업가적 과정의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지식구조, 즉 기업가적 인지(entrepreneurial cognition)에 대한 탐구가 이뤄지고 있다(Mitchell et al., 2002). Sarasvathy(2009)가 주장한 Effectuation** 개념이 가장 대표적이다(이우진·심호식, 2022).

기업가정신 교육은 1947년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기업가정신 교과목 개설을 시발점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다(Katz, 2003). 그 과정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은 ‘지식’에서 ‘기술(skill)’, ‘태도(mind-set)’로 확장되었고, 이에 따라 ‘이론’, ‘태도’, ‘의식’, ‘실무’, ‘기술’, ‘역량’을 모두 포괄하는 다양한 커리큘럼들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은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erprise education’, ‘entrepreneurial education’ 등 여러가지 단어가 혼용되고 있다(Mwasalwiba, 2010).

국내에서도 ‘기업가정신 교육’, ‘창업교육’, ‘앙트러프러너십 교육’, ‘앙트십 교육’, ‘디자인씽킹 교육’, ‘창직 교육’ 등의 용어가 복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김가영·김도현, 2019; 이종현 외, 2021). 기업가정신 교육을 이론, 태도, 의

* 출판편향은 긍정적인 연구결과가 부정적인 연구결과보다 더 많이 보고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예상되는 결과가 도출되지 못한 논문의 경우, 책상 서랍에 폐기된다는 ‘책상 서랍의 문제(file drawer problem)’와도 연관성이 높다(황성동, 2014; Rosenthal, 1979).

** 미래를 예측하는 인과적 관점이 아닌 미래를 창조하는 실현적 관점에서 일상과 주변으로부터 기회를 창조하는 기업가적 사고방식을 의미한다(Sarasvathy, S. D., 2009).

식 위주의 교육, 창업교육을 실무, 기술, 역량 위주의 교육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여러 연구들에서 이를 구분짓기 보다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조미숙, 2021).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실제 창업을 위한 교육과 기업가적 태도 및 지식 등을 위한 교육을 모두 ‘기업가정신 교육’으로 정의한다.

2.2. Entrepreneurship Education Curriculum

기업가정신이 학습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담론을 넘어서서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교육을 체계화하여 커리큘럼(curriculum)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일반적인 의미의 커리큘럼은 ‘학습자들이 공부할 것, 배워야 할 것을 정해서 일련의 순서대로 늘어놓은 것(박승배, 2015)’으로 ‘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등의 용어를 호환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기업가정신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이 관찰되고 있는데(강혜진·윤천성, 2020), 기업가정신의 본질과 교육 목적, 콘텐츠, 대상, 교수법 및 평가방식 등에 따라 이를 구분할 수 있다(Mwasalwiba, 2010).

먼저, 기업가정신의 본질(essence) 측면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은 ‘기업가적 역량(entrepreneurship competency) 모델’에서 기인한다. 다양한 기업가정신 정의로부터 기업가정신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이를 핵심 역량을 지표화한 것으로, JRC(Joint Research Centre)*의 ‘EntreComp’가 대표적이다. 이 역량프레임워크는 기업가 정신 역량을 육성하는 커리큘럼 및 학습 활동을 개발할 때,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된다(Bacigalupo et al, 2016). 많은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기업가적 역량 모델을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 및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Kim et al, 2020; 이재석·이상명, 2015).

기업가정신 교육을 목표(Objectives)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learn for) 교육, 둘째, 기업가정신의 지식정보에 관한(learn about) 교육, 셋째, 기업가적 성장을 위한(learn in)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Jesselyn & Mitchell, 2006; Kirby, 2004). 보다 일반적인 교육 목표로는 첫째, 기업가적 정신·문화·태도의 증진(increasing entrepreneurial spirit·culture·attitudes), 둘째, 스타트업 및 고용 창출(start-up & job creation), 셋째, 창업 및 성장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contribution to society), 넷째, 기업가적 기술 향상(stimulate entrepreneurial skills)을 위한 교육으로 분류가 가능하다(Mwasalwiba, 2010).

이러한 목표에 따른 세부적인 교육 콘텐츠들은 기업가적 지향성 함양을 위한 기술·가치·의도 행동과 기업가적인 개인 기술 향상, 기회 인지, 신규 사업, 기존 기업 경영관리 등으로 범주화된다. Mwasalwiba(2010)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다룬 21개 논문을 검토하여 이를 세분화했다. 그 결과, 기회 발견과 평가(idea generation/opportunity discovery), 사업계획 수립(business plan), 신규 벤처 창출(new venture creation), 위험 관리와 합리적 의사결정(risk & rationality), 기업가적 마케팅(marketing), 신생조직의 설립(organization & team building), 성장전략(managing growth), 유무형 자산 및 자원의 배분(financing & marshalling of resources), 중소기업(SME management), 법률이슈(legal issues), 기술혁신(management of innovations and technology), 프랜차이즈(franchising), 가족사업(family business), 협상기술(negotiation skills), 소통기술(communication skills), 문제해결력(problem solving) 등의 콘텐츠가 관찰되었다.

교육의 본질, 목적, 콘텐츠는 교육 대상의 수준에 맞게 세부적인 커리큘럼이 다르게 편성된다. 주요 교육 대상은 청소년, 대학생, 예비창업자, 창업자, 기타 그룹으로의 구분이 일반적이다(강혜진·윤천성, 2020). 선행연구들에서는 청소년(youth), 경영 전공 학생(business students), 비경영 전공 학생(non-business students at university), 창업 및 중소기업 종사자(entrepreneurs/SME owners, managers & employees), 정책 입안자, 은행가, 세무 당국 및 일반 대중(policy-makers, bankers, public), 실업자(unemployed), 사회 소수 집단(minority groups) 등으로 대상을 구분했다(Mwasalwiba, 2010).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대상의 연령이나 전공 및 전문 분야, 기타 특성 등에 따라 더 세분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기업가정신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와 실험들이 이뤄지고 있다. 선행연구로부터 발견된 교육방법은 모두 13개로 이론 기반 강의(theory based lectures), 사례 연구(case studies), 그룹 토의 및 활동(Group discussions), 사업 시뮬레이션(business simulations), 비디오 및 촬영(video & filming), 역할 모델과 연사 초청(role models & guest speakers), 프로젝트(projects), 토론 및 그룹 활동(discussions and group work), 사업계획수립(business plan creation), 게임과 경연(games & competitions), 워크숍(workshops), 발표(presentations), 방문 연구(study visits), 실전 창업(real venture setting up)이 있었다. 이를 전통적인 교육법(traditional method)과 혁신적인 교육법(innovative method), 수동적인 교육법(passive method)과 능동적인 교육법(active

* 유럽연합(EU)의 공동연구센터이다.

method)으로 구분하는데, 현장에서는 혁신적인 교육법보다 전통적인 교육법이 더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능동적인 교육법이 수동적인 교육법보다 창업의지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Mwasalwiba, 2010; Walter & Dohse, 2012).

기업가정신 교육 커리큘럼은 교육의 본질, 목적, 콘텐츠, 대상, 교육 방법 및 평가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된다. 그 구성에 따라서 다양한 커리큘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커리큘럼을 교육의 본질과 목적, 콘텐츠, 대상, 교육 방법을 조합된 결과물로 정의하고자 한다.

2.3. Entrepreneurial Intention

의도(intention)는 행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계획으로 교육을 통해 변화되는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수다(Bagozi et al., 1989). 기업가정신 교육 분야에서는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 ‘창업의도’, ‘창업의향’, ‘기업가적 의도’ 등의 용어로 표현되며, 교육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서 가장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Fayolle et al., 2014; 김도현 외, 2018; 배미아·김중성, 2022).

창업의도는 미래 어느 시점에 창업을 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개인의 의지 또는 신념으로 해석된다. 개개인의 태도를 창업을 위한 행동으로 연계하므로 창업의 첫 단계로 볼 수도 있다(박시사·강성일, 2007; 오영미·박성환, 2014; 이우진 외, 2013). 1993년 Kim & Hunter가 수행한 메타분석을 살펴보면, 태도와 행동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김장호와 금융필의 연구(2020)를 통해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에 유의하다는 것 역시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창업의지를 설명하는 연구 모형은 Shapero & Sokol(1982)이 주장한 창업 이벤트(entrepreneurial events) 모델과 Ajzen(1985)이 주장한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모델로 나뉜다(김도현 외, 2018). 창업 이벤트 모델은 인생의 주요한 이벤트(life event)를 마주했을 때, 창업이란 선택지를 인지하게 되고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한다. 반면, 계획된 행동 이론은 행위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behavior)와 주제 규범(subjective norms), 지각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가 의지에 영향을 미쳐 행동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의 효과로서 창업의도를 측정하는 것에 대해 기업가정신 교육이 창업을 위한 것으로 단순화된다는 비판이 존

재하기도 하나(Kim et al., 2020), 계획된 행동 이론은 기업가정신 교육을 통해 변화되는 행동과 태도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이론으로 많은 연구에서 활용된다(조미숙, 2021). 이에 본 논문에서도 독립변수인 기업가정신 교육의 효과로서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3.1. 메타분석

메타분석(meta-analysis)은 개별적이고 유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정량적으로 요약하는 통계 방법을 말한다(김지형, 2019). 20세기 중반에 들어서 학술연구가 활발해지고 방대한 양의 연구가 쌓이기 시작하자,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개발되었다. 영국의 통계학자인 Karl Pearson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합하여 분석한 최초의 인물로 알려지지만, ‘meta-analysis’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것은 1976년 미국의 통계학자인 Gene V. Glass였다(O’rouke, 2007).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과 혼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특정 주제에 관한 통합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서 모든 관련 연구를 수집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연구 결과의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의 체계적 문헌고찰과는 차이가 있다(원지현, 2020; Liberati et al., 2009). 메타분석은 동일한 연구 주제로 수행된 독립적인 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하여 타당하고 일반화된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의의가 있다(황성동, 2015).

이러한 메타분석에 대해서 상이한 조건의 연구들을 하나의 효과크기(effect size)로 환산하여 연구결과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모순되는 결과가 관찰되는 동일한 주제의 연구들을 분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오성삼, 200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메타(상관)분석을 활용하여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전체 효과크기를 검증하고자 한다.

3.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은 개체와 그룹 간의 관계를 노드(node)와 링크(link)로 구조화된 관계망을 표현하여 각 개체(node) 간의 상호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연계열, 공학계열, 인문계열, 사회계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적용 대상에 따라 사회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언어 네트워크, 지식 네

트위크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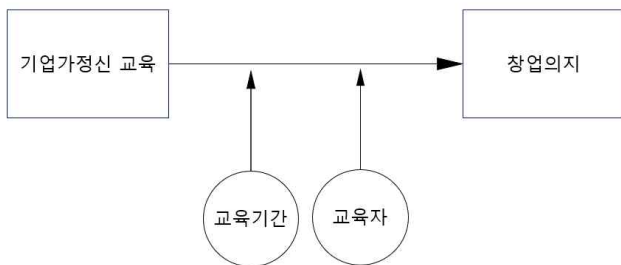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keyword network analysis)은 언어 네트워크 분석(language network analysis)의 일종으로 단어(word) 네트워크 분석, 의미(semantics)망 분석, 개념(concept) 연결망 분석, 네트워크 텍스트(network text) 분석 등으로도 불린다(박치성, 정지원, 2013).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 노드는 키워드를, 키워드들 간의 관계는 링크를 의미하는데, 단순한 키워드의 빈도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개념(키워드)들 간의 관계와 구조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이수상, 2014).

노드 간의 관계와 시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로 자주 활용된다(김영환·이채영, 2023).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의지를 주요 키워드로 탐색하여 선정된 논문 40편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키워드로 삼아 기업가정신 교육과 그 성과(창업의지)의 관계망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3.3. 연구모형 및 가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가정신 교육과 그 성과를 분석한 연구들을 관통하는 종합적 결론은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이 그 성과로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효과크기를 검증하고 관련 연구 동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의지 간의 상관관계와 기업가정신 교육 성과와 관련한 일련의 연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그림1>과 같이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기업가정신 교육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교육기간이 길수록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학습자 대비 교육자 수가 높을수록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4.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2013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최근 10년 동안 국내 학술지에 등재된 기업가정신 교육 관련 개별 연구들을 수집하여 기업가정신 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이 되는 논문은 국내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인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 DBPIA(누리미디어), KISS(한국학술정보) 등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탐색된 논문 중 비등재지 논문, 중복논문, 학술대회 논문집 및 분석이 불가능한 논문 등을 제외했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논문 40편은 ‘기업가정신 교육’, ‘창업교육’, ‘앙트러프러너십 교육’, ‘창업의지’, ‘창업의향’, ‘창업의도’ 등의 키워드를 주요 검색어로 수집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효과 크기 산출을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하고, 동일 논문의 독립변수, 종속변수, 조절변수 간의 관계망 파악을 위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강민정·강예원(2014). 사회적기업가 대학원 커리큘럼 개선방안 연구. *경영교육연구*, 29(2), 477-508.

강혜진·윤천성(2020).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동향분석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26(3), 517-522.

공혜원·김효선(2018).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의도의 관계: 기업가정신의 매개효과 및 성별 조절효과. *대한경영학회지*, 31(12), 2223-2244.

김가영·김도현(2019). 청소년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 2 개의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벤처창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09-118.

김도현·정선영·이우진(2018).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 정신교육이 기업가정신과 창의성 역량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7), 371-391.

김영환·이채영(2023). 네트워크텍스트분석을 통한 숲 체험 관련 연구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5), 153-173.

김장호·금융필(2020). 청년 창업의지의 영향요인과 창업행동 간의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7), 555-563.

- 김중성(2019). 청소년기업가정신교육 효과성 검증에 관한 탐색적 연구: 디자인씽킹 (Design Thinking) 을 활용한 청소년기업가정신교육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4(3), 129-140.
- 김지형(2019). 쉽고 편하게 메타분석. 서울: *북앤에듀*.
- 박승배(2015). ‘커리큘럼 전문가’의 의미 탐색. *교육과정연구*, 33(4), 1-17.
- 박시사·강성일(2007). 개인특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여행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1(2), 187-204.
- 박치성·정지원(2013).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 (socio-cognitive network) 분석을 통한 정책이해관계자 간 공유된 의미 파악 사례.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3, 828-849.
- 배미아·김중성(2022). 청소년 기업가정신과 긍정심리자본이 기업가적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6(3), 1-31.
- 배병운(2022).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프로그램이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7(4), 115-125.
- 신우중(2015). 체계적 고찰과 메타분석의 개요. *Hanyang Medical Reviews*, 35(1), 9-17.
- 신임희(2008). Meta analysis (메타분석) 의 이해. *병원약사회지*, 25(4), 283-287.
- 오성삼(2002). 메타분석의 이론과 실제.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16.
- 오영미·박성환(2014). 기업가정신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경영컨설팅연구*, 14(2), 199-221.
- 이수상(2014).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1(4), 49-68.
- 이승훈·윤정현·성상현(2019).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기업가정신 분야 세계 연구 동향 분석. *한국창업학회지*, 14(3), 72-93.
- 이우진·김진수·김용태(2013). 대학의 창업교육 품질이 교육만족도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28(3), 105-131.
- 이우진·심호식(2022). 기업가정신 교육의 변화과정과 교육자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 *기업가정신연구*, 3(1), 129-150.
- 이우진·장용석·이성상·한유진·배태준·최병철(2022). 앙트러프러너십 개론. 서울: *비엔엠박스*.
- 이우진·황보운(2015). 대한민국 창업교육 연대기: 창업교육의 특징분석과 미래 발전방안. *벤처창업연구*, 10(3), 171-183.
- 이재석·이상명(2015).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 기업이 지향성과 환경적 요인의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10(3), 61-74.
- 이종현·박수홍·강문숙(2021). 디자인 씽킹 기반 창의교육 프로그램 설계연구. *사고개발*, 17(1), 1-30.
- 정찬영·이소영(2020). 시니어 대상 창업교육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계획된 행동이론과 자기결정 이론의 통합모델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5(4), 69-81.
- 조미숙(2021).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의 성과: 메타분석과 종합적 개념화. *국내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 조재훈(2020). 메타분석의 이론과 실제. *Journal of Rhinology*, 27(2).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6). 네트워크 분석의 이론과 적용 사례, <https://dataonair.or.kr/db-tech-reference/d-lounge/technical-data/?mod=document&uid=235771>
- 황성동(2015). R 을 이용한 메타분석. 서울: *학지사*.
- Bacigalupo, M., Kampylis, P., Punie, Y., & Van den Brande, G.(2016). EntreComp: The entrepreneurship competence framework. *Luxembourg: Publication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10, 593884.
- Bae, T. J., Qian, S., Miao, C., & Fiet, J. O.(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 meta-analytic review.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8(2), 217-254.
- Decker, R., Haltiwanger, J., Jarmin, R., & Miranda, J. (2014). The role of entrepreneurship in US job creation and economic dynamism.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8(3), 3-24.
- Fayolle, A., Liñán, F., & Moriano, J. A.(2014). Beyo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values and motivations in entrepreneurship.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0, 679-689.
- Gartner, W. B.(1989). Some suggestions for research on entrepreneurial traits and characteristic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4(1), 27-38.
- Jesselyn Co, M., Mitchell, B.(2006).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South Africa: a nationwide survey. *Education+ Training*, 48(5), 348-359.
- Katz, J. A.(2003). The chronology and intellectual trajectory of American entrepreneurship education: 1876-1999.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2), 283-300.
- Kim, G., Kim, D., Lee, W. J., & Joung, S.(2020). The effect of youth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s: Two large-scale experimental studies. *Sage Open*, 10(3), 2158244020956976.
- Kim, M. S., & Hunter, J. E.(1993). Relationships among attitudes, behavioral intentions, and behavior: A meta-analysis of past research, part 2. *Communication research*, 20(3), 331-364.
- Kim, W. Y., Kim, H. G., & Hwangbo, Y.(2018). Impact Factors of Entrepreneurial Alertnes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1), 1-10.
- Kirby, D. A.(2004). Entrepreneurship education: can business schools meet the challenge?. *Education+ training*, 46(8/9), 510-519.
- Liberati, A., Altman, D. G., Tetzlaff, J., Mulrow, C., Gøtzsche, P. C., Ioannidis, J. P., & Moher, D. (2009). The PRISMA statement for reporting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of studies

- that evaluate health care interventions: explanation and elaboration.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51(4), W-65.
- Liñán, F.(2004). Intention-based model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iccola Impresa/Small Business*, 3(1), 11-35.
- Lorz, M., Müller, S., & Volery, T.(2011). Entrepreneurship education: A meta analysis of impact studies and applied methodologies.
- Mitchell, R. K., Busenitz, L., Lant, T., McDougall, P. P., Morse, E. A., & Smith, J. B.(2002). Toward a theory of entrepreneurial cognition: Rethinking the people side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7(2), 93-104.
- Mwasalwiba, E. S.(2010). Entrepreneurship education: a review of its objectives, teaching methods, and impact indicators. *Education+ training*, 52(1), 20-47.
- Neck, H. M., Greene, P. G., & Brush, C. G.(Eds.). (2014). Teaching Entrepreneurship: A Practice-Based Approach. *Edward Elgar Publishing*.
- Obschonka, M.(2014). Entrepreneurship as 21st century skill: Taking a developmental perspective. *Psycho-social career meta-capacities: Dynamics of contemporary career development*, 293-306.
- O'Rourke, K.(2007). An historical perspective on meta-analysis: dealing quantitatively with varying study results. *Journal of the Royal Society of Medicine*, 100(12), 579-582.
- Reynolds, P. D., Camp, S. M., Bygrave, W. D., Autio, E., & Hay, M.(2002).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 2001 summary report. *London Business School and Babson College*, 61-77.
- Sarasvathy, S. D.(2009). Effectuation: Elements of entrepreneurial expertise. Edward Elgar Publishing.
- Schumpeter, J. A., & Swedberg, R.(2021).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Routledge.
- Shane, S., & Venkataraman, S. (2000).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217-226.
- Shapiro, A., & Sokol, L.(1982). The social dimensions of entrepreneurship.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s Academy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Historical Research Reference in Entrepreneurship*.
- Walter, S. G., & Dohse, D.(2012). Why mode and regional context matter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24(9-10), 807-835.